

## “힘내세요 일본” 광주·전남 구호물결

### 일본 대지진

관련기사 ▶ 2·3·4·5·6·10면

### 광주시 복구지원단 50명 곧 파견 시민사회단체 긴급 모금활동 나서

사상 최악의 강진과 쓰나미, 연이은 원전 폭발 등 대재앙에 휩싸인 일본을 돕기 위한 광주·전남지역 각계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부터 국제구호·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애도를 표하고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지난 2002년부터 자매결연도시이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샌다이시에 물적·인적 지원을

위해 예산지원반, 구호물품지원단, 의료대책반, 긴급구조반 등 최대 50명 규모의 복구지원단을 조만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샌다이시와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필요하면 즉각 지원단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춘 방침이다. 구호물품지원반은 샌다이시민에게 다급히 필요한 생수나 컵라면 등 1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보낼 예정이다. 의료대책반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의료가관 협조를 얻어 의사와 간호사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다. 또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 소방

대원을 중심으로 편성된 15명의 긴급구조반은 생존자 구조 및 사망자 수습에 나선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태평양전쟁 피해 할머니들도 애도의 뜻을 밝히고 일본 내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광주YMCA와 광주국제교류센터 등은 공동으로 15일부터 일본돕기 모금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협의의 거처 지원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선대는 2004년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도호쿠(東北)대학에 “대재앙에

서 하루속히 회복하기를 빌며 무엇이든 돕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는 등 각계 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에 초기 긴급구호자금 5만 달러를 지원한 월드비전은 40만 달러를 목표로,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3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다. 굿네이버스와 일본 피해 현장에 10만 달러를 1차로 긴급 지원하고, 한국유니세프는 10억원을 목표로 캠페인을 시작하는 등 국제 구호단체들이 잇따라 긴급 모금활동에 돌입했다. /윤현석·양수현 기자 chad01@



지진과 쓰나미가 덮쳐 십시간에 폐허로 변해버린 일본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에서 13일 부상을 입은 한 주민이 헬리콥터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바닷물이 흥건한 길 양옆에 쓰나미에 밀려온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연합뉴스

## 후쿠시마 원전 3호기도 폭발

### 2호기 냉각장치 가동 중단 3차폭발 우려 미와기 시신 2000구...교민 사망 첫 확인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과 지진 해일(쓰나미) 발생 나흘째인 14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 제3호기가 폭발하고, 여진이 지속하면서 ‘방사선 공포’ 확산과 함께 2~3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날 미와기현 해안에서 2000구의 시신이 발견되고, 한국 국민 사망자 1명이 첫 확인되는 등 대지진과 지진 해일로 인한 사망과 실종자 규모가 4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각국 구조대의 지원 속에 자위대 병력 10만 명을 투입해 인명 구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희생자 규모가 워낙 커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폭발=지난 12일 1호기 폭발에 이어 이틀 만인 14일 3호기까지 폭발하면서 ‘동(東) 일본 대지진’이 이젠 ‘방사선 공포’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에나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이날 폭발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오전 11시1분께 후쿠시마 제1원

자력발전소 3호기가 폭발했으며, 격납용기는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3호기의 폭발원인도 1호기와 같은 수소폭발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폭발 이후 원전 주변의 방사능 수치는 법정 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폭발로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TEPCO) 사원 4명 등 모두 11명이 부상했다. 이번 가운데 이날 오후 제1원전의 2호기에서도 냉각장치 가동이 중단되면서 3차 폭발사고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1호기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120km 떨어진 미야기(宮城)현 온나카와(女川)원자력발전소에서 21밀리시버트가 검출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사망자 4만 명 추정...피해 확산=이날 미야기현 오시카(牡鹿)반도 해안에서 시신 약 1000구가 발견된 데 이어 미나미산리쿠초(南三陸町)에서도 시신 1000구가 또 나왔다. 미야기현 동북부의 미나미산리쿠초에서는

인구 약 1만7300명 가운데 대피한 7500명을 제외한 약 1만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만큼 시신이 추가로 발견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테(岩手)현의 리쿠젠타카타(陸前高田)시에서도 전체 주민 약 2만3000여명 가운데 5900명은 대피가 확인됐지만, 1만7000여명의 대피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인명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관광청은 피해지역을 관광하던 일본인 여행객 2500명의 행방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지진 이후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6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민 사망자 첫 확인=외교통상부는 14일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 교민 이모(40)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우리 교민 사망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히로시마 총영사관에 따르면 사망자 이모(40)씨는 일본 히로시마 소재 건설회사 직원으로서 지난 11일 지진발생 당시 일본 동북부 이바라키현 소재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굴뚝 증설공사 작업중 추락해 사망했다. 외교부는 또 같은 현장에서 조선적(朝鮮籍) 재일교포 김모(43)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권익기자 cki@연합뉴스

### 알림

###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 연중 시민강좌 올해도 ‘인문학 강좌’ 계속됩니다

광주일보는 광주시립미술관과 공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외 유명 강사를 초청하는 ‘인문학강좌II’를 연중 운영합니다. ‘광주미술을 창조하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김우창·승효상·최완수씨 등 국내 문화계의 스타급 교수와 명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수준 높은 문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

- 일시: 3월17일~12월15일, 매달 셋째주 목요일(9월만 넷째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총 10차례 강의
- 장소: 광주시 서구 농성동 311-1번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옛 전남도지사 관사) 세미나실

<p>◀3월17일=김우창 문화의 전통과 삶의 일체성 이화여대 석좌교수</p> <p>▶4월14일=승효상 공존과 상생-건축미학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p>	 
<p>◀5월19일=김광복 소리의 미학 전남대 국악과 교수</p> <p>▶6월16일=조용헌 호남의 명문가와 풍수 원광대 동양학과 초빙교수</p>	 
<p>◀7월14일=최완수 겉제 정선과 진경산수화 간송미술관 관장</p> <p>▶8월18일=이종범 낙항과 유배 조선대 사학과 교수</p>	 
<p>◀9월22일=대안스님 음식, 통섭의 미학 조계종 발우공양 대표</p> <p>▶10월13일=이애주 굿과 춤의 미학 서울대 체육학과 교수</p>	 
<p>◀11월17일=채희완 대동놀이의 신명과 생성 부산대 영상학과 교수</p> <p>▶12월15일=여연스님 차의 미학 강진 백련사 주지</p>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대표이사 최금환



## 일본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

日本の皆さん、がんばってください。

**제주도**

오렌지꽃 & 스타크루즈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2박3일 ★ 목포-제주도 ₩139,000원~  
2박3일 ★ 장흥-제주도 ₩159,000원~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10,000원, 수송비(광주-목포&장흥)

**광주에서 출발하는 울릉도**

1박2일 ₩279,000원~  
2박3일 ₩309,000원~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 2억원 영업보통보험 가입 / 여행금액 기입업체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 공동조각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통보험 가입(예상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경비(항공, 숙박, 식사, 가이드, 봉사료, 선박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 상의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예수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아름다운 여행을 시작되는 곳 **조이여행**